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벤처집적시설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이희연 · 권용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건국대학교 대학원)

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의해 급속도로 벤처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된 것도 벤처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성은 있으나 고부가가치의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기술 및 경영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산업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집적지의 형성배경과 주변환경이 매우 상이한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사례로 하여 생태계적 관점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한 벤처기업들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비교·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벤처생태계의 개념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배태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공간적 분포와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특성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셋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입지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벤처생태계 개념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배태성

1) 벤처생태계 개념

지식정보사회의 꽃으로 비유되는 벤처기업은 집적경제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관련기업들끼리 집적하며, 물질, 인적, 지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혁신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적, 사회적 요소들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정보와 인력의 교류, 기업간 제휴와 경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게 되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주변환경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벤처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상이하여 벤처집적지의 특성이 다를 경우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장과정 및 발전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벤처기업을 둘러싼 주변의 외부환경을 함께 고찰하는 생태계적 관점이 필요하다.

벤처생태계란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말하며, 벤처생태계에는 생산자인 벤처

처기업과 소비자인 벤처캐피탈, 그리고 회수시장이 존재하며,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벤처인프라의 구축과 인력의 공급, 그리고 기술재창출 잠재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해나가는 상황이 이상적인 벤처생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 인력,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 정책과 변화지향, 지식 공유, 실패관용 등의 문화가 정착되어 벤처기업의 순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스피노프, 산학연구, 창업활성화 등등 통해 기술이 재창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배태성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적절한 벤처생태계는 경제구조, 인프라, 법, 제도,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친벤처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특히 벤처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창업공간을 공급해주는 것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지원정책이다. 벤처기업 입지공급시책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가진 지역내에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일 건물내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업체들이 공동시설이용, 상호정보교환, 공동전시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입주기업과 설치자에 대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과 부담금 면제, 융자지원 등이 제공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받기 위해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의 일정구역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그리고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1년 6월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전국에 167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63%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서울에 입지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75%는 서울벤처밸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서울의 벤처기업 점유율 48%와, 서울 대비 서울벤처밸리의 점유율이 50%에 비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훨씬 더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울벤처밸리에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집적시설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이 장소귀속적인 배태성의 속성을 잘 들어내고 있다. 또한 서울벤처밸리는 국지적 네트워크와 배태성이 형성되어 벤처기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하기에 적합한 생태적 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생태적 환경과 벤처기업의 특성

1) 벤처집적시설의 생태적 환경 비교·분석

서울벤처밸리는 강남의 테헤란로와 양재-포이동 주변의 벤처집적지를 지칭한다. 특히 테헤란 밸리는 1990년대 중반에 국내 벤처기업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 크고 작은 100여개의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2001년 8월 현재 서울벤처밸리에는 250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79개의 벤처집적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산업단지 첨단화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구로산업단지가 최근에 들어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산업구조를 조정·개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키콕스 벤처센터는 벤처기업 입주를 위한 빌딩으로 건축되었으며,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건물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두 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생태적 환경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인프라 환경, 입지적 환경, 인력/자금공급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지원인프라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해주는 '입지지원'이 가장 유용한 혜택이라고 손꼽았고 다음으로 지원시설 또는 벤처기업과 관련시설이 동일한 건물내에 입주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과 관련시설에 대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업종의 기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업종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벤처밸리 업체들이 더 많은 효용성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희망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서울벤처밸리의 벤처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용자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이외에도 입지지원과 정보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키콕스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마케팅과 우수업체 지정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적지의 입지적 환경을 보면 현재의 벤처빌딩에 입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었고, 유사/동종업체의 집적, 도심과의 접근성, 정부 정책의 혜택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벤처밸리 업체의 경우 유사/동종 업종들의 집적'과 '도심과의 접근성'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정부 정책의 혜택 때문에 입주하였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벤처밸리가 집적효과를 누리는데 매우 적합한 입지적 환경임을 말해주고 있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말미암은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력/자금공급 환경을 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비해 서울벤처밸리가 더욱 양호한 공급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창업투자회사의 60%가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활용이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2)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특성 비교·분석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벤처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 인프라 환경, 입지적 환경 및 인력/자금공급 환경 등등 생태적 환경이 상이하며, 벤처집적지로서 형성된 배경도 차이가 나고 있다. 벤처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며, 그 지역의 생태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면서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집적지내 벤처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특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벤처기업집적시설내에 입주하여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시기를 비교해보면 서울벤처밸리의 벤처기업들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55%로 나타났다(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1996년 이전에 창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1999년에 창업한 기업이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우 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창업년도의 차이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서울벤처밸리에는 창업기와 초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도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벤처밸리는 한국벤처기업의 상징으로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기업의 이미지면에서 지명도를 살릴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기에 적절한 벤처생태계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기나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서울벤처밸리에 입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생태적 환경은 신생·창업하는 기업에게 유리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형태가 많으며,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집적지이므로, 아직 초기단계이고 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관련업종의 집적과 관련시설의 완비,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적 지역 분위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생태적 환경이므로 신생기업들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데 그다지 매력적인 집적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

서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벤처집적지 성장단계 측면에서 보면 성숙된 확산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창업기 혹은 초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3/4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벤처집적지 성장단계로 볼 때 아직 초기 단계에 속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고도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업체의 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디지털산업 단지가 제조업 기반의 벤처집적지로서, 이 지역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은 산업단지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므로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기술면에서 성숙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집적지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재창출 능력을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응답업체들의 66.7%는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동연구 및 다른 기업과 협력연구를 통해 연구개발하고 있었다.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전체 종업원의 50% 이상이 연구개발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53%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공동연구 및 협력연구를 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의 비율이 37%로 나타나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이 연구인력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 역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37%를 점유하는데 비해 공동연구 및 협력연구를 하는 기업은 21.6%로 나타나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우 전체 인력의 50%~70%가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의 2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초기 성장기나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과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창업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매우 높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성숙기나 정체기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품수명주기 이론을 실증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창업기의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시장조사 및 수요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일이 기업의 주된 과제이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나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구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을 다시 높이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내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1) 벤처기업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벤처기업들은 소규모이고 영세적이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7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원청/하청 업체,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기 또는 초기성장기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경우 소수의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 고도성장기 혹은 성숙기로 갈수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연계보다는 하청업체나 원청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업종은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집적지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5개 미만의 원청업체 수를 가진 기업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20개 이상의 원청업체수를 가진 기업이 37.5%로 나타나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서울벤처밸리는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하여 있으므로 원청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활발한 사업활동으로 많은 원청업체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매출이 늘어가는 단계인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먼저 벤처기업들이 원청/하청 및 협력/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보면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업계의 평판을 듣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업계에서의 평판이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공간적 영역을 보면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경우 기업이 성장할수록 동일구에서 서울시, 수도권, 국내, 해외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숙기/정체기가 되면 다시 공간적 영역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벤처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은 대부분이 서울시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었다.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창업기 혹은 초기성장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많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주로 동일구와 서울시내 위치한 업체들과 원청/하청,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는 성장기 혹은 성숙기/정체기에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 위치한 업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벤처기업들이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유형을 판매네트워크와 연구네트워크, 생산네트워크로 나누어 벤처기업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창업기의 업체의 경우 연구네트워크와 판매네트워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업이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로 갈수록 생산네트워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판매네트워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는 연구개발네트워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네트워크의 비중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업종의 경우 판매네트워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두 업종 모두 연구와 판매를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협력네트워크의 공간적 연계패턴을 보면,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동일구내 위치한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과 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제구조의 변화속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유연적 생산을 통해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유리한 생태적 환경이 형성된 지역에서 자생력을 키우면서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환경이 서로 상이한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

여 벤처기업들의 특성과 네트워크 현황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두 집적지의 생태적 환경을 비교해 보면 서울벤처밸리지역은 벤처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와 관련시설, 시장, 기업간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업종과 관련된 신생기업들로 이들 업체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도심과의 접근성과 유사/동종업체들의 집적을 입지요인으로 손꼽았고 교통과 주차난에 대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기존의 공단이 정부의 벤처집적지 조성계획에 따라 집적지로 전환된 경우로,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체가 많으며, 고도 성장기와 성숙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적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를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장소의 지명도가 낮은 점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면 서울벤처밸리는 동일구와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들과 보다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수평적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업간의 협력은 공동판매 혹은 마케팅과 같은 판매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서울시와 수도권 그리고 국내와 더 나아가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보다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벤처밸리에 비해 수직적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여건들은 일반화될 수 있지만, 벤처집적지가 형성되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벤처생태적 환경이 상이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벤처집적지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벤처집적지의 생태적 환경과 상황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인 창업공간의 제공과 각종 지원 인프라의 구축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간, 기업과 협회, 기업과 수요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시켜서 벤처집적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서울벤처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속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의 특성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집적지에 입지한 벤처기업의 성장과정과 발전 방향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벤처집적지로서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들이 창업한지 불과 3-4년이 지났지만 이들 기업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이 고도 성장기 이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벤처기업의 수명주기가 매우 짧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먼저 입주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간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집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는 벤처기업의 육성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경우 각 집적지의 생태적 환경과 그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지원책을 도입하여 각 집적지마다 지니고 있는 생태적 환경의 장점을 강화시켜서 생태계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